◀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난한 날의 사랑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무슨 돈이냐며 묻는 아내에게 남편은 비상금이었는데 당신의 핼쑥한 모습이 안쓰럽다며 내일 몰래 혼자 뷔페에 가서 소고기 실컷 먹고 오라고 주었습니다.
만 원짜리 한 장을 펴서 쥐어주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가엔 물기가…….
"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어젯밤 남편에게서 만원을 받은 아내는 뷔페에 가지 못했습니다. 못 먹고 산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께서 며칠째 맘이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아내는 지갑에서 그 만원을 꺼내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 아버님, 만 원이예요. 제대로 용돈 한 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작지만 이 돈으로 신세진 친구 분들하고 점심이라도 나눠 드세요. "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을 힘겹게 꾸려 나가는 며느리가 보기 안쓰럽습니다.
" 여보게들! 우리 며느리가 오늘 용돈 빵빵하게 줬다네" 그리곤 그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다음해 설날,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습니다. 기우뚱거리며 절을 합니다. 주먹만한 것이 이제는 훌쩍 자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절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만원을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줍니다.
" 할아버지-- 고맙습니다아~~~"
세뱃돈을 받은 지연이는 부엌에서 손님상을 차리는 엄마를 불러냅니다.
" 엄마, 책가방 얼마야?"
지연이는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서 세뱃돈으로 받은 만원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 엄마한테 맡길래. 내년에 나 예쁜 책가방 사줘어?"
요즘 남편이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내색은 아직 않지만 안하던 잠꼬대까지…….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신 김치 몇 조각…….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양복 속주머니에 낮에 딸 지연이가 맡긴 만원을 넣습니다.
남편더러 내일은 맛있는 것 사 드시라는 메모와 함께…

◀추억생각하기▶ "빠이롯드 잉크"
중학교에 입학하면 노트와 함께 제일 먼저 사던 것.
왜 반드시 잉크를 묻힌 펜을 사용해야 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흰 교복에 튄 잉크자국은 여드름만큼이나 신경쓰였고 노트나 책상에 흘린 것은 백묵을 굴려 빨아내던 잉크와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무좀 특효약이라고 발가락 사이에 파랗게 바르던 '외도하는 잉크'도 있었습니다.

교회 목표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교회생활지침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22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6월1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나 어떻해요?

어느 날 주님이
도적같이 찾아오시는 날
질펀하게 세상 잠에 취하여
잠꼬대나 하고 있을 나를 보시면
주님!
그때 나 어떡해요?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날
미처 못 알아봐 마굿간에 모셔놓고
식구들끼리 둘러앉아
삼겹살이나 구워먹는 나를 보시면
주님!
그때 나 어떡해요?

어느 날 주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시는 날
먹고사느라고 정신없이 헤매다
눈인사 조차 못하고 지나 보내면
주님!
그때 나 어떡하지요?

어느 날 주님이
나 데리러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등불도 세마포도 준비하지 못하여
이 방 저 방 뛰어다닐 나를 보시면

주님!
그땐 정말 나 어떡하지요?!

엄마가 딸에게
화장대나 식탁위에
돈을 두지마라
자녀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에는
반드시 네 이름부터 밝히거라
무턱대고 사람을 찾는 전화는
대답하기도 싫더구나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50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 (시편 2)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 송 Hymn	342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노은숙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8:12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예수님은 누구신가(1) "빛이신 예수님"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511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전교부 2절:다같이)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6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1	노은숙	박정자	선 교 부	김경일.김교섭
8	박일영	박태원	세월의 흐름	김반석.김성국
15	이광희	박하림	이일원.김혜경	김종건.김종우
22	이규임	박혜련	유병민.한상숙	김진근.김현수
29	이재영	변민강	최원영.이종란	민광호.박병민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청년부:토 저녁 7시

1.교우소식
*이사.문영미 성도.☎ 528-1648 ✉ 140 West Tamaki Rd. Glendowie
*정정 합니다. 김경천.이수자 성도.정민.은혜.은선
2.이번 금요일은 구역예배주간입니다(매월 첫주)
*구역식구를 위한 중보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구역모임입니다.
3.9기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를 마쳤습니다
*강순남.고성일.권영희.김동숙.김봉희.도세경.마경춘.박양순.양경배 이규임.이선희.이용완. 이재윤.임병숙.현석호
4.권사기도회.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갖습니다.
5."5분 콘서트": 정중한(피아노)
*Tea Time을 가지면서 틈틈이 짧은 콘서트 무대를 갖습니다
6.영화클럽"가설극장"의 추억보기. 오늘 Tea Time 직후 정기영화상영
*<장소> Hall <영화> 빠삐용(스티브 맥퀸/더스틴 호프만)
내일은 모처럼의 공휴일! 이런 영화를 보며 진지하게 채워갔던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채워 주는 편안한 오후가 되십시오.
7.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30 <성경강해> 출애굽기**
*얼마 후면 지천명, 이젠 하늘의 뜻을 아는 듯해도 괜찮으련만 말씀 속의 숫자, 모양 하나하나에 숨어 있는 하나님 뜻의 깊이를 찾지 못해 안타까워만하다 날이 밝습니다.
8.교우들께서 가지고 계신 물건들을 "물물교환"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서 담당해 주실 자원봉사 교우를 기다립니다.

◀착한 시인들▶
혼자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용혜원-

이 나이에도
혼자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 드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이젠 제법 산다는것에
어울릴 때도 됐는데
아직도 어색한걸 보면
살아감에 익숙한 이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모두들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
나이값을 해야 하는데
이젠 제법 노숙해 질때도 됐는데
나는 아직도 더운 눈물이 남아있어
혼자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삶이 용기와 싱싱함이 넘쳐야 하는 데 때로는 쫓기다시피 떠밀려 사는것이 아닌가 하며 되돌아 서 볼 때가 많습니다.
이젠 제법 여유로움의 여백에 가끔씩은 나를 풀어둘 나이로 생각 들다가 아무런 여백이 없음에 그저 나만의 공간으로 나를 눕힙니다.
사춘기 소년이 갖는 설레임과 열등감의 공간으로...
나 보다는 더 살았을 시인 목사의 고백...그것이 있어 기댈 위로가 됩니다